

월/요/광/장

이재민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부러워 할 정도로 세계적이다. 그만큼 자식 사랑과 기대 심리가 간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부모 바람대로 성장해 주면 더 이상 바람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아직 어린데도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진다 싶을 때는 걱정이 커진다.

오래 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아기가 세상이 낯도룩 말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지적장애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모든 면에서 더뎠다. 중학생 때는 나쁜 기억력과 산만한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행복한 미래 준비하나요

그렇다고 아동초기가 성격형성에 중요하다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들여다보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 맞게 교육할 수 없고, 태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등 생애 발달 단계별로 다르게 가르칠 수도 없지 않은가. 더욱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이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일일이 구별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유명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너는 너무 형편없는 놈이라서 커서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아이가 바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고전문학을 즐겨 읽었고 어머니 또한 고전문학 마니아였다. 아인슈타인도 그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인문고전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부모는 독서를 통해 아인슈타인 두뇌를 바꾸기로 작정하고 심대에 들어선 아들에게 고전철학 대부분을 독과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

인슈타인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독서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며칠씩 토론하곤 했으며, 인문고전은 물론 상대성 이론의 밑거름이 되는 '카우트만'의 고수전자질량에 관한 자료까지 탐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인간의 성장이 아동 초기에 일찍 나타날 수도 있지만 청장년기가 되어서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어릴 적에는 조금 어눌하더라도 부모들이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스

스로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다.

교육학에 '학생은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다. 이를 '자기 충족 예언'이라 하는데,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지를 달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부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브루코비 박사는 부모의 기대와 호평 역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에 소홀했다는 자칫 퇴출당할지 모르는 각

박한 세상이다. 그들에게는 자녀 교육과 직장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묘안도 별로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찾아 낼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에서 자발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형성되어 오히려 창의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당부하고자 한다. "넌 안 돼" "다른 애들은 잘 하는데 넌 왜 못해"라며 질책하기보다는, "잘 할거야" "넌 잘하고 있어" 등 긍정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예언을 말하는 편이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큰 효과로 나타난다.

이제 곧 음력 설날이 다가 온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세배하는 아들딸에게 기본 좋은 덕담을 들려주어 의욕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라. 일가친척까지 모인 자리에서 미주일고수일 달기 싫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소중한 아들딸이 기본 상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라. 공부 가 아니라도 자기 소질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라. 기본 좋은 말은 설명 거짓말이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순천향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이양희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아이를 안고 몇 시간씩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을 볼 때가 있다. 부모들 마음은 모두 '좋은 진료를 빨리 받고 싶어 할 텐데'하면서 필자는 빨리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할 재판 당사자들

그리고 소송을 끝수록 그만큼 비용도 더 지출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거나 부인하고 유리한 사실은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관계를 잘 알고 이를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하고 부른 증인들이 당사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등 때문에 위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위증 사범이 인구비를 고려할 때 일본의 2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잘 가려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기게 된다.

"무엇 소송에 있어서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가 있거든 그 말을 얼른 믿지 말고 늦추어 응하여 천천히 그 실상을 살필 것이다-무엇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말이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라도 한 쪽 편을 말만들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매양 보며 수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자는 같이 제소해 오면 같이 옳다고 하여 장황하게 논단하여 을을 간사한 자로 만들고, 을이 제소해 오면 을이 옳다고 하여 앞서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같이 거짓이라고 믿는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며,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익힌 노루 가죽이나 성낸 두개비의 씨름 같아서 조롱하는 소리가 온 고을에 날릴 것이다"

이 말에서처럼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신속·경제'를 너무 강조할 경우 자칫 '적정·공평'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권리 보호시기를 놓치거나 증인 등의 기억력 퇴보 등 재판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소송의 적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정건배



언제나 새해가 되면, 듣게 되는 명언(名言)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일지계재어신'(一日之計在於晨), '일년지계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는 뜻이다.

꼭 이 명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며 심중할구는 '규칙적 운동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자신이 지켜야 할 최고 목표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

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선생 생활공감형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동호인클럽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며, 생활체육 국제교류 등을 증진하여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체육 조직 운영을 더욱 체계·신진화하여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민중의 힘과 기상이 듬뿍 담긴 전통종목을 현대에 맞게 재정립하여 보급하며 생활체육지도자를 초등학교에 지원하여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사업을 전개한다.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 챙기자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아니던가. 제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라 해도 손익간에 사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루의 계획, 한해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이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하고 또 건강을 바탕으로 목표를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남도에는 86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부산에서 펼쳐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16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0여개 종목별연합회 가운데 전남도생활체육회가 최고단체로 선정되어 스포츠 7330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와 도지사기대회,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축제 등 생활체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더욱더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전

이러한 계획에 걸맞게 지금부터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본격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적인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전남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1인당 연간 46만원, 성인 전체로는 1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생활체육을 꾸준히 즐기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다. 또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가정의 화목도 동시에 키울 수 있고, 지역 사회에도 항상 웃음이 넘쳐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아주조목 2011년 신묘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느라 토끼처럼 강종강종 뛰는 도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고가 화장품 피해 사례 많아 신중 구매해야

최근 피부가 점점 거칠어져 피부관리센터를 찾았다. 피부관리 비용이 20회에 2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좀 비싼 듯 싶었지만 160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말에 계약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었다. 원장은 "피부관리는 집에서 해야 한다"며 300만 원어치의 화장품세트 구입을 요구했다. 내가 무슨 소리냐며 필쩍 휘자 원장은 "프랑스의 유명 모델들과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제품으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다 쓰고 있다"며 부추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화장품 안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짝퍽 상품들이 많다고 해서 거절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화장품을 사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저 명품이라만 사족을 못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악용하는 장사꾼들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무턱대고 속지 말고 자세한 성분과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겠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시설

119대원 참사 '장비 노후'가 빚은 인재

이틀 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이 고도를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상당수 진압장비가 사용연한을 넘겨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가 난 고가 사다리차 역시 지난 1992년 11월에 사들어 사용연한(15년)을 넘긴 지 4년째이며, 굴절차도 1993년 구입했다고 한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지역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10대 중 5대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더욱이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소방장비의 사용연한을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장비 노후화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5개 소방서에는 굴절차와 고가 사다리차를 소방서별로 1대씩 모두 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최고 10억 원 이상으로 비싼데다 전

액 지방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장비 교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 관계자들이 "대부분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요구했지만 매년 예산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 119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장비 상태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호소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명을 다루는 119구급대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안전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정형편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방관들의 교육사업은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장비 현대화나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안전을 등한시한 광주시에 적적 책임이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장비 교체와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화된 장비는 언제든 예견된 참사를 부를 뿐이다.

구제역 방역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구제역이 발생한 지 50여 일이 넘었지만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농가에서조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송아지 65마리가 폐사했다. 장흥 9마리, 장성·담양 4마리, 구례 2마리, 고흥 1마리 등 지역구분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폐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어미소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사례도 25건이나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백신 부작용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아지는 폐사율이 6%에 달해 평소에도 도내에서 하루 평균 20마리 정도의 송아지가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방백신을 접종한 송아지가 폐사한 이후 이 지역 인근 한우농가 3곳에서 연달아 3마리가 예방백신 접종 뒤 폐사한 사례를

보면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구제역은 2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나 백악이 무효다. 살처분과 백신 접종을 위주로 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 해결을 도려내겠다는 얘기가.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 미야기현은 신속한 신고와 강력한 초동방역만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고도 전국 확산을 막았다고 한다. 비효율적 방역에 이은 기계적 살처분 답습이 재고돼야 하는 이유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잡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2, 3차 사후관리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방역체계를 그대로 뒀던 우리나라 축산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두 달이 가까워 오도록 전염원과 전파 경로마저 파악 못 하는 방역시스템으로는 가축 재앙을 피할 수 없다.

無等鼓

해적(海賊)은 인류가 처음 바닷길을 열고 교역을 시작한 무렵부터 존재해왔다. 뱃사람들의 모험담인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도 등장한다. 영웅들이 트로이아를 떠나 제일 먼저 한 일이 해적질이었다.

해상무역이 번성한 고대 지중해와 예게에는 해적들이 들끓었다. 소아시아의 길리키아와 그리스는 그들의 활동거점이었다. 노예를 노획하여 팔았다. 당시에 무역과 국방이 해적행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전쟁이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였던 셈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젊은 날 유학하던 로도스섬으로 가던 중 해적에게 붙잡혔다.

스칸디나비아의 북게르만족(노르만)은 8~10세기 유럽 북부와 서부해안을 무대로 약탈과 침략행위를 일삼아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바이킹'이었다.

한반도 주변에도 해적들이 많았다. 남중국해에 해적이 창궐하자 당나라는 초토해적사(招討海賊使)를 두고, 관직

이나 이권을 주며 회유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해적의 대명사는 왜구(倭寇)다. "내가 죽으면 호국룡(護國龍)이 되어 왜구를 막겠으니 바다에 묻어달라"는 신라 문무왕의 유언을 보면 그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장보고는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과 국방을 담당하면서 해적을 소탕했다. 조선 세종 때는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도 했다.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구시대 유물로만 여겼던 해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은 세계 해상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교묘요충지를 무대로 납치를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도 8차례나 납치됐다.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대진' 패거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은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금미305호는 아직도 억류 중이다. 선박내 '선원피난처' 설치와 전문 보안요원 배치 등 예방적 조치를 서둘러야겠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